일자리가 곧 복지… '시니어클럽' 개관

중구, 노인인구 비율 21.1%로 좋은 일자리 572개 확대

고령화 시대에는 일자리가 곧 복지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4월 8일 '중구 시니어클럽'을 개관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원하는 일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572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중구 시니어클럽'은 퇴계로80길 52(동화동)에 위치한 3층 건물에 들어섰다. 지하 1층에는 어르신 교육장(배움누리터)과 시장형 사업장(새로이룸터)을, 2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회의실, 대기실 등의 공간을 갖췄다. 3층에는 다목적실(푸르내음터)이 있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동아리 모임, 도심형 스마트팜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중구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21.1%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다.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는 2023년 2,053개이던 노인 일자리 수를 2024년 2천615개로 562자리를 확대하고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미디어 전문서비스, 커피박 새활용, 시니어승강기 안전단 등 신규 사업도 도입한다. 시니어클럽에서도 자체 일자리 10개를 모집 중이다.

중구 시니어클럽 개관식에서 김길성 구청장이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의 유형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불법카메라 제로(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확인,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커피향기(커피찌꺼기 수거 및 방향제 제작) △전통시장 사랑단(전통시장 환경정비) 등 329개의 일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도담돌보미(아동복지시설 지원) △시니어프렌즈(장기요양시설 어르신 말벗) △청춘스타 동화구연단(아동 막대인형극 공연) △시니어 행정도우미(공공기관, 박물관, 소상공인연합회 업무지원) 등 183개의 일자리가 있다.

서울 중구 시니어클럽은 다른 시니어클럽과 차별화된 시장형 일자리 60개도 추진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당 기자〉

'종이없는 사무실' 2년간 나무 314그루 살린다

중구의 식목일 공약, 구청 종이 사용량 2025년까지 50% 절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식목일을 앞두고 '종이없는 사무실'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청의 종이 사용량을 2025년까지 50%를 절감하겠단 계획이다. 이는 나무 314그루를 살릴 수 있는 양이다.

중구는 지난 한 해 628만 장의 종이를 업무에 사용했다. 2024년에는 25% 줄인 471만 장을, 2025년에는 50%를 줄인 314만 장을 사용량으로 정했다.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면 온실가스를 77톤을 줄이고, 물 31,400톤을 절약할 수 있다. 종이와 복사기 등을 사는데 필요한 예산도 7천8백만 원가량 줄이는 효과를 본다.

이를 위해 중구는 앞으로 종이 보고서 없이 태블릿 PC를 활용해 회의와 보고를 진행한다.

특히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간단한 사항은 구두보고나 SNS, 업무관리시스템의 메모 보고 등을 활용토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자료는 출력하지 않고 회의장의 화면을 통해 송출한다. 자료집이나 홍보물은 전자파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이 사용 감량 목표를 설정해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2년간 종이와 토너 구매 실적을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직원회의에서 "종이 자료가 한 번 보고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개인적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한 지 꽤 됐다"면서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아끼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종이 절약을 당부했다.

〈이형연 대표기자〉

중구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도심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현황 분석

중구, 시내버스·택시비 등 월 평균 이용액 1만5천300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교통비 이용 통계를 분석했다.

중구는 올해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하지만, 조례에 근거해 2025년에는 월 4만원, 2026년에는 월 5만원까지 한도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실제로 교통비를 얼마나 쓰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는 향후 예산 편성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어르신 교통비는 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사용한 금액은 3개월마다 통장으로 입금된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큼만 지원되므로 한도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월 말 기준 어르신 교통비 지급 신청자 수는 1만8천458명이다. 신청자 수는 5개월 동안 대상자(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누구나)의 57.3%에서 71.4%로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1인당 평균 사용액이다. 지난해 11월 1만2천350원이었던 것이 올해 2월에는 1만5천300원까지 올랐다. 신청자 중 실제 교통비를 사용한 인원도 61%에서 78%로 17%가 증가했다.

3개월간 최대로 받을 수 있었던 8만 원을 모두 이용한 어르신은 1천473명, 8.2%이다.

나이대별 사용금액 비율을 보면 젊을수록 더 활발하게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5~69세의 경우 주어진 교통비의 36.04%를 사용했지만 75~79세의 경우 19.60%, 85~95세의 경우 4.32%에 그쳤다.

김길성 중구청장.

택시 이용률도 지난 4개월간 6.4%에서 12%로 약 2배가 증가했다.

중구는 이러한 통계자료 및 주민 의견을 계속 취합하여 내년과 내후년의 교통비 지원금액과 방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교통비 사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교통비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취지 등을 재안내해 사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형연 대표기자〉

적극행정위 출범… 공무원 창의행정 유도

중구, 변호·노무·회계·건축사·도시계획 전문가 10명 구성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4월 1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행정학 교수, 도시계획 전문가, 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위원과 부구청장 등 내부위원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해석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문, 의견제시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구의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좀 더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할 것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단순 모범 공무원을 구분할 것 △소신있게 혁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줄 것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법령과 지침의 테두리를 넘었는지 명확히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중구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법률 해석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사전컨설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면책위원회에서 면책과 소송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훈 부구청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보호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당 기자〉